

“아트레지던스는 예술가의 창조성을 자극하는 것”\_레즈 아티스 회장 마리오 A. 카로



Mario A. Caro

“아트레지던스는 예술가의 창조성을 자극하는 것”

## 레즈 아티스 회장 마리오 A. 카로

- 서정임 기자 • 사진 서지연 기자
- 장소 두산아트센터 협찬

일정 기간 작가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작품 제작에 필요한 항목들을 지원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이하 아트레지던스)’. 이러한 창작지원 프로그램이 국내에 정착된 지도 10여 년이 흘렀다. 국립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작스튜디오부터 사립미술관, 상업 화랑까지 국내 아트레지던스는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며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다. 그 안에서 서교실험예술센터, 금천예술공장, 경기창작센터 등 대규모 창작공간들의 잇따른 개관은 국내 아트레지던스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때마침 경기창작센터 개관과 함께, 전 세계 아트레지던스 운영자들의 국제연합기관인 ‘레즈 아티스(Res Artis)’의 컨퍼런스가 지난 10월 30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 이에 컨퍼런스를 위해 방문한 ‘마리오 A. 카로(Mario A. Caro)’ 레즈 아티스 회장에게서 아트레지던스의 세계적 흐름을 듣고, 국내 창작스튜디오의 현황을 점검해봤다.

‘레즈 아티스’는 아트레지던스의 발전과 교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비평적 포럼을 생산하고, 아트레지던스가 신설될 때마다 그곳 관계자들과의 직접 면담 형식을 통해 롤모델을 제시하는 멘토링 조직이다. 마리오 A. 카로 회장은 이 기관의 역할에 대해 “레즈 아티스에서 진행하는 아트레지던스에 대한 비평과 담론은 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세계 곳곳의 아트레지던스에게 훌륭한 모델과 경험, 자원을 공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기자는 반체제성, 반제도성으로 일컬어지는 대안적 아트레지던스가 가진 근본정신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세계적 관점에서부터 지역적 이슈까지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는 예술가들의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세계관과 창조적 접근의 문화 교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날 아트레지던스가 생성하는 예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일반적으로 아트레지던스는 중견 작가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 훌륭한 아트레지던스의 몇몇 관계자들은 작품 활동에 관여해 아방가르드 미술을 리드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예술가들은 창작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상업 갤러리들과 비엔날레 등의 전시를 포함해 100% 현대미술장소에서 전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며 “이는 곧 시공간을 넘어 실험적인 창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며, 새로운 예술의 탄생으로 연결된다.”라고 아트레지던스가 가진 ‘징검다리’ 기능을 새삼 깨닫게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급력을 가진 아트레지던스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나갈까? 그는 무엇보다 ‘균형’을 강조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역적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춰, 예술가의 필요성에 주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아트레지던스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기관은 예술가가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이상적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지역사회에도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아트레지던스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재정적인 문제이다. 개인 재단이나 기업 후원에 의해 기금이 적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정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예술 후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우리 조직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며, 다른 문화적 제도들이나 사단법인 등과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며 “대도시에 있는 아트레지던스의 경우 대부분 정부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특히 아트레지던스가 꽃을 피운 한국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고 국내의 아트레지던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카로 회장의 기대와는 달리, 국내 미술계 내부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아트레지던스가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직도 작업실만을 제공하거나, 조금 나은 곳이라도 오픈 스튜디오, 작가와 비평가의 매칭 프로그램, 국제교류프로그램 등의 개념에 머물러 있을 뿐더러, 프로그램 역시 각 기관 간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그 역시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도약하기 한 과정으로 해석했다. 그는 “한국 현대미술 아트씬(art scene)의 주요 원천은 창조력이 풍부한 아방가르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업 화랑들과 독립큐레이터들, 성장하는 비평적 논평, 활발한 예술이론 등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아트레지던스는 이러한 예술계의 양상을 보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것은 각각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독특한 목소리가 있는 예술 공동체로써 발전될 것

이다.”라고 전망하며, “이를 위해선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통찰력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또한 아트레지던스 ‘전문 인력’의 덕목으로 “창작지원프로그램은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다. 때문에 전문 인력들은 예술가의 창조적 접근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했다.

끝으로 그는 경기창작센터의 가능성에 대해 “이곳의 핵심은 경기도미술관과의 친밀한 관계이다. 두 시설의 협력은 기호논리학 자원의 공유일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통찰력 있는 리더십과도 연결된다. 아트레지던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모델의 창출은 세계의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경기창작센터는 지켜볼 만하다.”고 기대했다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근거지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생산하는 ‘레즈 아티스’의 수장 마리오 A. 카로(Mario A. Caro)는 뉴욕에서 활동 중인 미술사학자이자 큐레이터, 평론가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그는 인디애나-퍼듀 대학교(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에서 주변 미술관과 학교가 함께 가르치는 다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미국의 뉴욕시립대학교(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미술사를 강의하고 있다.

위 내용을 프린트합니다

닫기